

# 코스닥 기업, 운영자금 확보 박차 유상증자 규모 전년비 25% 늘어

발행주식 수도 93% 가량 늘어  
경기침체·고금리에 실적악화 영향  
증시 회복세에 흐름 지속 전망

올들어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채무상환 등 운영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건수는 172건, 유상증자를 통해 확충한 자본금 규모는 5527억원이다.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176건)와 비슷한 반면 자본금 규모는 전년 동기(4436억원) 대비 25%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상증자를 통해 늘어난 발행 주식 수도 22억9559만5000주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조달 목적은 대부분 성장과 거리가 먼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이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넥스틴은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으며, 웨스트라이즈는 18일 운영자금 2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셀리드는 총 175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달 24일 주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손진영 기자 son@

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하나미크론도 지난달 17일 시설·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12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유상증자 증가 추세는 경기 침체·고금리 여파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 1464개사의 1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3.98%, 15.02% 감소했다. 부채비율 또한 59.55%로 전년 말(57.49%) 대비 2.06%포인트 상승했다.

코스닥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코스닥 기업들이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 대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시 상승 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며 “주가가 상승할 때 기업의 주식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해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영일만 신항만 개발 ‘최대 수혜’ 전망

**株라클라의 종목  
세방**

적정주가 2만2150원 제시  
석유 가능성, 긍정적 영향

독립리서치리서치알음은 24일 세방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신항만 개발 정책에 석유 발견 뉴스까지, 물동량 증가로 인한 최대 수혜를 전망했다. 추가전망 ‘긍정적’, 적정주가는 2만215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정부의 항만개발 및 물류 강화 정책은 세방이 보유한 포항 영일만 항만 시설의 가치와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포항 영일만에서의 석유 발견 가능성은 물류와 운송 수요를 급증시켜 동사의 물류 네트워크와 항만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방은 2020년 12월 포항 영일만항에 물류센터를 개장했

며, 울산, 부산 등지에도 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는 부연이다.

세방은 1965년 설립된 항만하역 및 화물운송 사업자로 1977년 코스피에 상장됐다. 하역을 비롯해 항만 사용, 유류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해운업 상승이 예상된다. 세방은 이미 컨테이너 운송 공급량 증가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2024년 세방의 실적은 매출액 1조3873억원, 영업이익 423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5%, 47.9% 성장한 수치다.

최 연구원은 “컨테이너 운송 사업 부문에서 1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중속기업 가운데 세방 메탈트레이딩(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거래), 세방익스프레스(컨테이너해상운송, 항공운송)의 고성장으로 예상한 실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삼성증권, 연금자산 빠른 성장세… 17兆 돌파

8월 말까지 퇴직연금 모바일채권 행사

삼성증권의 연금 자산이 17조원을 돌파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 연금 자산은 2022년 6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 2023년 1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금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연금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연금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금전문 상담 인력들이 연금운용 및 세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류 작성성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DC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삼성증권 3분 DC’, 국내 최초로 IRP 내 관리 수수료를 없앤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더불어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Samsung POP)을 통해 연금 관련 제도에서 추천 상품에 이르는 다양한 디

지탈 콘텐츠를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와 매월 현장에서 진행되는 연금세미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타사 대비 높은 ‘AA+’ 신용등급(한신평)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올 들어 모바일을 통한 퇴직연금 채권매매 서비스를 제공해 운용 편의성을 증대한 데다 업계 최다 120여 개의 채권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퇴직연금(DC, IRP)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모바일채권’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팝(mPOP)’의 ‘퇴직연금 채권매매’ 메뉴를 이용해 DC·IRP 계좌에서 채권을 처음 매수하는 고객에게 커피쿠폰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원관희 기자

## 미래에셋운용 “나스닥·월배당 상품 ‘종지부’”

美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ETF  
초단기옵션 전략 활용으로 차별화  
韓 인기 많은 ‘AI·은퇴’ 키워드 담아

“월 분배형 상품 경쟁이 치열한데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 상장지수펀드(ETF)가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부회장)는 24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발딩에서 열린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 ETF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상품은 25일 신규 상장되며 상장 규모는 1000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설정액 중 최대다.

이번 ETF는 나스닥100 지수를 기반으로 ‘초단기옵션 전략’을 활용한 것이 기존 커버드콜 ETF와의 차별점이다. 콜옵션 매도비중을 약 10% 이하로 줄였고, 나머지 90%는 나스닥100 지수 상승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미래에셋운용은 해당 상품에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한다. 이 전략은 목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단기옵션 전략은 만기가 짧은 옵션을 매일 매도해 프리미엄을 쌓는 전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이 24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 ETF’를 소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략이다. 이를 통해 기초지수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에 각각 일정 비율을 더한 만큼의 배당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이준용 전략ETF 운용본부장은 “초단기옵션과 옵션 매도 비중 최소화를 통해 주가가 상승할 때 오르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똑같이 내리는 커버드콜 상품의 손익 비대칭성 한계를 보완했다”며 “초단기옵션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시장 성과의 90% 이상을 추종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월배당 커버드콜 시장의 성장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슈와 연결했다. 은퇴를 앞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 운용본부 본부장은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ETF에 한 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2가지 키워드(AI·은퇴)가 담겨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ETF가 추종하는 나스닥100은 과거의 혁신과 미래의 혁신을 모두 담고 있는 유일한 투자상품”이라며 “기술 중심 주요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 이기에 ‘포스트 엔비디아’도 이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승자인 엔비디아와 미래에 워너가 될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ETF까지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온 생애를 통틀어 나스닥100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용 부회장은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할 노후를 위한 월배당 ETF 투자는 분산이 잘돼 있는 대표지수 상품 중심으로 선택하고 비용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만의 노하우로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NH투자증권, 해외부동산 서비스 강화

코로나 코리아와 업무제휴 체결  
고객자산가 투자 니즈 선제 대응

NH투자증권이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사인 코로나 코리아와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NH투자증권과 코로나 코리아의 업무제휴 협약식은 지난 21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최됐다.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Premier Blue) 본부는 고객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자산가의 해외부동산 투자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맞춤형 자

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고객자산가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미국 경제 활황에 따라 자산가들의 달러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뉴욕 콘도 투자, 겨울철 휴양을 위한 하와이 별장 투자, 사내 유보자금을 활용한 미 서부 지역 골프장 투자자문 등 고객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허정윤 기자